

## 금호건설, 새로운 기업 PR 광고 선포



금호건설이 새로운 기업 PR 광고인 '틀을 깰수록 아름다워진다' 편을 선보인다. 금호건설이 슈퍼모델 강승현을 내세워 도전적 창조 정신을 강조한 새로운 기업 PR 광고를 선보였다. 금호건설은 '틀을 깰수록 아름다워진다'는 기업 광고 컨셉트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신문 광고와 CF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금호건설이 UAE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관제탑 형상을 버리고 배의 돛 모양으로 시공한 '아부다비 관제탑'과 슈퍼모델 강승현의 인상적인 활동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킨 형태로 만들었다. 그동안 브

랜드 광고에 치중해오던 건설사들이 았다튀 기업 PR 광고를 선보이는 이유는 주택 시장의 불황을 기업 이미지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금호건설 역시 공방 공사의 강자라는 점과 차별화된 디자인 기술을 앞세운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 대림산업,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여



대림산업이 임직원 50여 명과 대학생 자원 봉사자,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서 '2008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진행했다. 지상 2층 건물 2개 동 8세대를 짓는 이번 행사에서 봉사자들은 지붕 목공사 및 마감 작업, 벽체 및 외부 마감 공사, 내부 단열재 및 석고보드

작업을 수행했다. 대림산업은 현재 무주택 서민들에게 행복한 집을 지어주는 행복 나눔, 장애우와 자활 근로자들에게 소망 성금과 물품을 나눠주는 소망 나눔, 문화 소외 계층과 문화 예술 교육,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문화 나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외 계층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나눔, 현장과 본사가 지역의 1산·1천·1거리를 가꾸는 맑음 나눔의 '5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롯데건설, '혁신의 날' 선포식



롯데건설이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을 '혁신의 날'로 정해 경영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이창배 사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영 혁신과 6시그마 관련 특강, 부서별로 '혁신 챔피언'과 '체인지 리더(Change Leader)'를 선정, 경영혁신 과제를 도출

하는 시간도 가졌다.

롯데건설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앞으로 매달 2주차 화요일을 혁신의 날로 정해 혁신 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경영 혁신 과제를 집중 수행하고 제안 활동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 활동을 재점화하고, 전사적인 혁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여



삼성물산이 2008 해비타트 번개 건축에 이상대 사장 등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 신축과 노후주택 보수 등 봉사 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9년째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화합의 마을에서 주택 2개 동 8가구와 마을 회관 1개 동 등 총 3개 동 건축에

직접 기술자를 파견해 전문적인 건축 기술이 필요한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노후도가 심한 세대를 선정해 설비와 마감재를 교체해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0년부터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은 지난해까지 총 223세대 주택 건축에 참여해 저소득 무주택 가정에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 현대건설,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 삼계탕 배달



취임 이후 꾸준히 현장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이 올해에도 전 임직원에게 삼계탕을 선물해 현대건설 가족의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현대건설은 중북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8일, 본사 및 국내외 건설 현장의 임직원을 포함한 6000여 명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즉석 삼계탕을 가정으

로 배달했다. 특히, 해외 현장 직원들의 국내 가족에게도 삼계탕을 전달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달래면서 현대건설 가족이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삼계탕 선물은 이종수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소통하려는 현장 경영의 일환으로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에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종수 사장은 올 여름 휴가에도 카타르, 쿠웨이트, 두바이 등의 건설 현장을 찾을 만큼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삼계탕을 즐기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한편, 신명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